

2018 지방직 7급 국어 해설 (C책형)

제공 : 유두선 선생

1. ② '양'은 호칭어로 띄어쓰고 성씨를 가르킬 때 '씨'는 붙여 쓴다.

<오답풀이>

① '간'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 또는 사이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③ 성과 호는 붙여 쓴다. 총부공은 나라에서 내린 시호로 붙여 쓴다.

④ 해, 설, 산, 강 등은 외래어 다음에 붙여 쓴다.

정답 ②

2. ③ '소맷깃'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옷깃' 또는 '소맷자락', '소맷귀'로 써야 한다.

정답 ③

3. ③ '윗옷'은 [위돋]으로 발음된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

정답 ③

4.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볼 때 ② 화젯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5. ③ ㅎ이 탈락되고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대체되었다.

정답 ③

6. (나) 미술작품에서 동물 등장 (일상적 동물과 상상의 동물)

(가) (나)를 구체화 (종교적 동물과 인간을 위한 동물)

(다) (가)를 구체화 (신적 존재에서 인간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전락)

(라) 주술적 존재를 구체화

정답 ②

7. 이 작품은 농촌 붕괴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 ㉡, ㉢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 '걱정'은 농민의 저항의식을 보여준다.

정답 ③

8. ④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뜻하는 불교용어 일체유심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 ① 이심전심 :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한다는 뜻
- ② 심기일전 : 어떤 동기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지다.
- ③ 인심불가측 : 사람 마음은 예측할 수 없다.

정답 ④

9. ① 경필의 행동을 볼 때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정답 ①

10. ④ 박위원의 마지막 발언에서 다른 사람 의견 경청했음과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사회자는 주제를 전환할 수 없다.
- ② 김국장이 상대방 주장을 수긍한 것이 없다.
- ③ 윤사장이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내용이 없다.

정답 ④

11. ④ 하늘과 땅은 중간 개념이 없다. 두 단어는 모순 개념이다.

정답 ④

12. ② 조사 '요'는 생략해도 말이 될 때 사용한다. 여기서 생략할 수 없으므로 종결어미 '오'로 써야 한다.

정답 ②

13. ④ 부활 - 복명

〈오답풀이〉

- ① 솔선 - 인솔 ② 강등 - 하강 ③ 낙원 - 낙승

정답 ④

14. ② 보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아마 → 과연 ③ 대통합을 이루고

④ 조건으로서 → 조건으로 필요하다

정답 ①

15. ④ '들리다'는 들다의 피동사 ①, ②, ③ ~하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사동이다.

정답 ④

16. 식민도시 군산과 식민 농촌인 옥구의 상황을 구체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17. ③ (가)에서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 일으키는 것이 열정이라 했으니 시와 노래에 능하다는 것이 열정과 연결시킬 수 없다.

정답 ③

18. ④ 마지막 문장에 수증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맞는 말이다.

정답 ④

19. 자연을 예찬하면서 자연 친화를 노래하고 있다. ④도 자연 친화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① 쓸쓸함 ② 외로움 ③ 애민정신

정답 ④

20. ① 횡류력은 요트를 옆 방향으로 미는 힘이니 나아갈 수 없다. 순풍일 때는 압력으로 역풍일때는 양력으로 전진한다.

정답 ①

〈총평〉

2018년 지방직 7급은 문법 8문항, 독해 6문항, 문학 5문항, 한자 1문항이 출제되었다. 요즘 출제경향과 같이 문법 비중이 줄고 독해와 문학 비중이 높아졌다. 특이한 점은 고전 문법, 국문학사, 한문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에 과학지문이 출제되고 지문의 길이도 길어진 점에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체계적인 독해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소설도 단순 감상이 아니라, 평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묻고 있다. 문법 문항 수는 줄었지만 문제는 높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